



기독교 세계관 목회 리포트 | 당산동 두레교회

# 개혁주의 신앙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글 오세택 두레교회 담임목사

최근 대형 교회와 목회자들의 비리로 인해 한국 사회가 개신교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싸늘하다. 가톨릭과 불교는 성장하는데, 개신교 교회는 매년 약 5백 개씩 줄어, 한때 6만개를 자랑하던 개신교 교회가 5만개로 줄었다. 그 중에 4만개 가까운 교회가 백 명 미만의 작은 교회들이고, 개척한지 10년이 지나도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는 교회가 전체 개척교회의 반이 넘는다. 이러한 어두운 한국 교회 상황에서도 세상을 성경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고, 삶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쳐, 삶의 변화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신앙운동을 통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21세기 새 시대를 열어가는 교회들을 소개한다.



### 두레교회와 기독교세계관

두레교회가 매주 발행하는 주보 첫 면에는 두레교회의 정체성을 선언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두레교회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신조로 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에 속한 교회로서 주후 1986년 9월 28일에 설립되어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자 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이 선언 가운데 기독교 세계관이란 말이 없지만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이란 말 속에 이미 기독교 세계관을 담고 있기에 태생부터 이 비전을 갖고 있었다.

어느 듯 이십년을 넘긴 지금 얼마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때 부끄럽기 짝이 없다. 그러나 한 지역 교회가 어떤 운동에 구체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한 세대, 삼십년은 기다려야 한다는 말로 위로를 삼는다. 열매로 대답할 날을 기다리면서 부족하지만 그 동안 노력했던 바를 나누려고 한다.

제일 먼저 소개할 수 있는 것은 '꿈을 꾸는 교실'이다. 이 교실은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한 것으로 어릴적부터 기독교 세계관을 일상 속에서 갖도록 하자는 목적으로 엄마 아빠들이 모여서 시작된 것이다. 지금은 재도약을 위해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지만 매주 토요일 아이들을 교회로 불러서 수순인 일상의 사실들부터 기독교 세계관을 갖도록 과정을 짜고 진행했다. 인체에 관한 성경적 이해와 관리, 자연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와 돌봄, 친구관계와 가정, 돈을 어떻게 이해하며 사용해야 할 것인지를 아이들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고 운영했다. 특히 방학 중에는 시골 학교나 캠프장을 빌려서 자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관찰하게 하고 고백하게 한다. 앞으로 교실의 구조를 정비하고 나면 더 적극적으로 기독교 세계관 체험을 확대할 계획인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과 세계의 역사를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보게 하는 것이다. 한국의 역사 중에서 특히 근현대사 이해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어 가르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교사인 엄마 아빠들의 준비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 부모들이 먼저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하게 되는 바 전 교회의 중요한 행사가 된다.

### 쉼터와 민들레 교실, 베베하우스

다음으로 소개할 수 있는 것은 쉼터 운영이다. 실직 노숙자 25명을 교회 안에 있는 시설에서 숙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시혜적 봉사가 아니라 이 시대에 가장 고통 받고 있는 자들과 함께 하면서 시대를 읽고 기독교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이 기독교 세계관적 실천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직 노숙자가 된다는 것을 개인의 실수나 연약함으로 보지 않고 사회적 모순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능률과 실질이 곧 선이다. 이를 갖지 못한 자들은 실패자로 본다. 그래서 실직노숙자들에 대한 인식이 지극히 개인적인 선악으로만 간주한다.

이는 아모스 시대 때 당시 지도자들이 가졌던 인식과 동일하며 역사상 어느 시대로 막론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기본인식이었다. 자본과 정치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탐욕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억압과 탈취의 체제를 만들 수밖에 없으며 이를 합리화 내지는 정당화하기 위해서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희생양으로 내 몰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세계적으로 확대하면 하루에 2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하루에 보잉기 100 대분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아무런 아픔이나 느낌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은 논외로 하더라도 기독교인들이라면 문제가 많은 영성이라고 밖에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실직노숙자를 위한 쉼터 운영과 하루 2만 5천 명이 죽어가는 이 문제에 지극히 미약하지만 '25,000저금통 운동'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나오는 돈을 아프리카 청년 지도자들에게 보내서 양계사업을 돕고 있으며 일부는 선교사님들을 통해 그 지역에 아사 직전에 있는 자들에게 빵을 공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민들레교실'과 '베베하우스'를 운영한다. '민들레교실'은 지역의 결손가정 아이들을 맡아 방과후 지도를 하는 것이며 '베베하우스'는 노숙여성들과 조선족 여성들의 쉼터로 운영하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 전 성도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게 함으로 낮은 곳으로 향하는 기독교 기본 영성을 경험하고 배우게 하고 있다.



### 나눔과 섬김의 예산편성

프로그램만으로는 이 영성을 세우지 못한다는 인식 하에 교회의 방향과 비전을 섬김에 두고 예산편성도 나눔과 섬김에 우선한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따라 교회의 역량을 낮아짐에 맞추고 있는 것이다. 나눔과 섬김에 50%이상 지출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기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기에 잘 맞추질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교회가 뭔가를 소유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그리고 갖지 않는 교회 형태는 없는지를 담론으로 삼고 토론 가운데 있다. 이런 정신으로 일 년에 두 차례 봉사주일로 정하고 흠여져서 섬김으로 예배를 대신하기도 하고 야외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건물에 메이는 것에서 자유로워지려고 한다.

이 외에 우리가 직접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나 운동은 기독교 비정부단체나 선교단체들과 협력하고 있다. '희년 함께'와 토지문제와 조세 문제에 대해 공부하고 있으며, 가나안 농군학교와 협력 사역을 하고 있고, 틈틈이 기독교 철학의 대가 강영안 교수님의 특강을 듣고 있다. '기독교청년아카데미'와 협력하면서 기독교청년사회와 운동을 모색하고 있으며 노후대책이 전무한 교회 노년 성도들을 위한 '두레마을'을 준비하고 있다. 금년에는 첫 사업으로 농장가꾸기부터 시작하려고 한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하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야'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험하는 것이다. 생계의 염려가 없는 세상을 실험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기독교 세계관 실천은 성경공부와 설교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란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실천하신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을 통해 교회에 사명으로 주어졌다. 하나님의 나라는 산상보훈에 명명백백하게 이미 제시되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나라,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나라, 온유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 나라,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나라, 오른편 빵을 친 자에게 왼편 빵을 돌려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역지로 오리를 가지는 사람에게 십리를 따라가는 나라,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벗어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보물을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는 나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도무지 염려하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구체적인 실천이리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한다면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하나의 말장난에 지나지 않으리라.

### 기독교세계관의 실천을 위하여

사람은 이렇게 살 수 없다. 아무리 기독교 세계관이 멋있어 보이고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다워 보여도 오른편 빵을 친 사람에게 왼편 빵을 돌려 되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사람이 하는 나라, 운동이 아니다. 성도만이 할 수 있는 나라이며 운동이다. 기독교 세계관을 위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은 바로 성경공부와 설교를 통해서 자신들이 성도라는 정체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앞에서 본 것처럼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운동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운동은



기독교론으로 접근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 부으심이라는 기독교론의 핵심, 즉 구원론으로 접근해야 한다.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기업인 된다는 의미가 무엇이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 부으심을 존재론적으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요원하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마다, 성경공부를 할 때마다 이 사실을 확인한다. 성경 전체의 핵심 사상과 스토리도 이를 다루고 있다. 구원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없이는 성도의 바른 정체감을 가질 수 없고, 성도의 정체감이 없이는 산상보훈의 삶을 살 수 없다.

### 자기중심적 사고를 벗어나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해야

한국 교회가 120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기독교 세계관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부재한 것은 구원에 대한 가르침이 잘 못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현재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이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99%가 예수 믿고 죄용서함 받고 천당 가는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이 대답은 백점 만점에 삼 십점 정도의 수준이다.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철저한 자기중심적 이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평소에 성경을 도구적으로 읽고 배웠기 때문이다. 사람이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 자신의 필요, 그것이 심적 안정이 되었건 아니면 신체적 안락함이 되었건 자기 유익을 위해서다. 아니면 정신적, 영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함이다. 자기의 필요와 욕구를 위한 신앙이라는 자세를 넘어서지 않으면 참된 구원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나 이해를 초월해서 하나님 중심적 사고와 이해를 갖자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중심성을 초월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중심적으로 존재하는 개인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선결되어야 할 일은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바로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가 사람의 사고를 새롭게 하기에 개인에게 자기초월을 요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시가 우선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계시는 분명하다. 구원이란,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 부으심이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옛 자아의 모든 죄악을 씻기는 일이며, 또한 그 옛 자아를 죽이는 일이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자기애적인 옛 사람의 결과인 죄악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들을 도말하신다. 그리고 주님의 죽음으로 자기애적으로만 살 수 있도록 상실된 옛 사람까지 죽여주신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그를 믿는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뿐 아니라 새로운 자아로 거듭나게 하신다. 성령을 부어주심은 옛 사람의 실존을 좇지 않고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다. 바울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으로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라고 정의한다.(고후5:14-17) 그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은 곧 타자를 위해 사는 것이다.(고전10:31-33) 그러므로 구원이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애적으로 살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자기중심, 자기애적으로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와 타자를 위해 사는 삶으로 존재론적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삶은 하루 아침에 나타나지는 않는다. 누룩이 가루 서 말을 보이지 않게 서서히 부풀게 하는 것처럼, 겨자씨가 큰 나무로 서서히 자라나는 것처럼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 접붙임을 받은 가지에 원 동치의 진액이 올라오는 것처럼 새로운 자아상이 시작된 것임을 아는 것이다. 이처럼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구원의 참된 의미를 존재론적으로 이해하고 체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보기에 이 일에 전념하고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은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외치지 않았다. 그러나 구원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존재론적인 응답이 기독교 세계를 펼치게 되었다. 그 기독교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좋아서 허다한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도 이런 운동과 역사를 꿈꾸며 기도해 본다. 기독교 세계관학술동영회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하겠다.



**오세택 목사**  
 현 두레교회 담임목사이며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